

	<b>보도자료</b>	2026. 4. 15.(수) <b>배포 즉시</b> 보도 가능		
<b>농업기술원</b>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 760-7510
		업무담당자	이현주	☎ 760-7544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## ‘위기를 기회로’ 과학 기반 표준시비 실천 캠페인 전개

- 농업기술원, 5월 29일까지 토양검정 및 맞춤형 비료 처방 서비스 연중 제공 -
- 표준시비 실증 결과, 비료 사용량 평균 35% 줄였음에도 수량·품질 차이 없어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비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‘표준시비’ 실천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.
  - 표준시비는 토양검정으로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적정량만 공급하는 과학적 방법이다. 관행 대비 비료 사용을 대폭 줄이면서도 생산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농가 생산비 절감은 물론 토양 산성화와 지하수 오염 완화 등 환경 보전에도 기여한다.
- ‘위기를 기회로, 표준시비 실천 확대’ 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캠페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집중 운영된다.
  - 도내 농업인단체와 협력해 실천 운동을 전개하며, 토양검정과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, 퇴·액비 활용 확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.
  - 실제 농업기술원이 지난해부터 서부지역 양배추, 브로콜리 등 4개 작물 30개소에서 현장 실증을 추진한 결과, 비료 사용량은 평균 35% 감소했으나 수량과 품질은 관행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- 또한 참여 농가 설문조사에서도 85%가 수량·품질 변화가

없다고 응답했으며, 사업 만족도는 88%로 높게 나타났다.

- 농업기술원은 표준시비 확대를 위해 맞춤형 토양검정 서비스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.
  - 참여 희망 농가는 작물 재배 전 토양시료(겉흙 제거 후 표토부터 15cm 깊이까지 5개 지점 채취, 약 500g)를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.
  -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기술지원조정과 과학영농팀(064-760-7541~4)으로 하면 된다.
-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“비료 수급 불안으로 농가 우려가 큰 상황에서 표준시비는 비용 절감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대안”이라며 “많은 농가가 캠페인에 참여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